

1. 서론

_Introduction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전 세계적으로 환경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학자들은 환경윤리의 발전을 위한 방편으로서 전통적 종교를 연구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환경윤리와 종교, 종교와 생태학으로 언급이 구체화되고 있다'¹⁾ 특히 환경윤리 및 실천방안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불교에서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고 불교와 생태학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선(禪)은 한국의 불교사가 입증하고 있듯이 한국의 중요한 종교로 자리매김 해왔고 우리의 사상과 정신사의 한 부분을 차지해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 선(禪)의 전체론적이고 평등적인 세계관,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등의 특성들이 생태학과 융합되면서 생태적 위기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찾고 있다.

'한국의 사찰건축은 4세기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승단이 거주하며 종교적 수양과 의례를 함께 해오면서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또한 한국문화재 중의 55%정도의 다수 문화재를 보유하여 한국건축의 실질적 명맥을 이어왔다.'²⁾ 즉 사찰은 한국건축의 보고이며 선(禪)사상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선 생태학적 해석을 통하여 한국 사찰의 조형적 특성을 추출하여 선생태학의 건축 조형적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사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과 선생태학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는 선(禪)생태학의 조형 미학적 해석을 통하여 선종사찰의 조형적 특성을 추출하여 선(禪)생태학 사상의 건축 조형적 개념을 고찰하는데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2장에서 동국대학교에서 발행한 5권의 서적(불교와 생태학,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학제적 연구로서의 불교생태학, 불교사상의 생태학적 이해, 현대사회비판과 불교생태학)과 선과 생태철학이라는 서적을 토대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3장은

1) 동국대학교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 학제적 연구로서의 불교생태학,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p.311

2) 김개천, 선의 건축조형 개념에 관한 연구: 고려 중,후기 사찰을 중심으로, 한국선학회 제9호, 2005.2 pp.53-54

위에서 도출해낸 특성들을 바탕으로 5가지 공간조형개념을 추출하고 이 개념을 토대로 하여 4장에서는 선행연구에 의해 선(禪)적 특징이 잘 나타났다고 분류되어진 사찰 내 전각을 중심으로 건축 조형개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5장 결론은 사찰의 건축 조형개념에 관한 정리 및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논한다.

현존 사찰의 대부분은 조선 중후기에 이루어졌다. 물론 이러한 사찰들의 역사나 전체 구성의 틀은 조선시대 이전에 형성되었지만 현존하는 사찰의 95%이상이 임진왜란 이후³⁾에 변형되었다. 전란이후 야외활동이 쇠퇴하고 실내에서의 수행이 강조되면서 실내공간이 확대되었는데 대표적인 공간이 요사와 문루이다. 요사는 생활의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평면도 복잡해진다. 또한 다양한 실들을 가진 종합적인 용도로 변한다. 즉, 조선후반기의 대루인 문루에서 의식과정상에 행하는 반승(飯僧), 관욕(灌浴)을 비롯하여 평소 조종의 위패를 시는 등의 용도를 남겨두고 모두 요사로 옮겨갔다.⁴⁾ 문루는 의식에 적합한 형식보다는 경관을 감상하는 누정으로 변화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아 실내 공간으로 변화하여 대방이 있는 요사로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⁵⁾ 이는 시대적, 정치적 상황과 더불어 선(禪)불교의 영향으로 교학적 활동이나 불교 고유의 신행활동보다는 개인의 수행⁶⁾에 필요한 공간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조선시대에 중창되거나 복원되어 선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찰 가운데 선행연구에 의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논해진 사찰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필자가 선정한 사찰 내 전각 또한 조선시대에 중창된 건축물들로 선정하였으며 그 근거로 시대의 흐름 상 선종사찰이라고 분류되어진 사찰조차도 사찰 전체를 보았을 때는 선(禪)과 교(敎)가 혼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禪)사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요사와 문루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 3.2장의 공간조형개념을 설명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이미지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표 1〉 선(禪)적 특징이 두드러진 전통사찰 내 전각

| | 사찰명 | 전각명 | 시대 | 위치 |
|---------|-----|-----|-------|-----------------|
| 사례조사 사찰 | 선암사 | 심검당 | 19c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
| | 송광사 | 우화각 | 18c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
| | 화암사 | 우화루 | 15c | 전북 완주군 운주면 가천리 |
| | 봉정사 | 영산암 | 19c | 경북 영주시 부석면 취평리 |
| | 부석사 | 안양루 | 조선 후기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
| 참고대상 사찰 | 범어사 | 불이문 | 17c |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 |
| | 개심사 | 범종각 | 15c | 충남 서산군 운산면 신창리 |

3) 김봉렬,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컬처그라피, 2011, p.107

4) 홍병화·김성우, 조선 후기 대형요사 형성배경과 분류,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09.

5) 홍병화, 조선 후반기 불교건축의 성격과 의미,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2010 p.69

6) 홍병화, op cit, p. 109

2. 선(禪)생태학과 전통사찰 _Background

2. 선(禪)생태학의 이론적 고찰

2.1 선(禪)생태학의 배경 및 가치

2.1.1 선(禪)생태학의 배경

'한국 불교계에서 환경과 생태 및 생명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불교생태학'이라는 용어는 2000년 이후 쓰이기 시작했으며 불교생태학의 연구는 2004년 10월 '에코포럼'이 창립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에코포럼'은 불교와 생태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학제적 접근을 통해 생태와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담론과 연구 교류를 위해 창립되어 거의 매월 정례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을 주제로 8개국 21명의 관련학자들이 참여한 국제학술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발표된 발제문들은 현재 5권의 단행본으로 출간 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규모의 포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1.2 선(禪)생태학의 가치

선(禪)은 남방불교나 초기불교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법계연기의 사유, 생태계에서와 같이 모든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적 상호관계성에 대한 사유를 포함하고 더욱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선(禪)사상은 생태계전체에 생명을 부여하여 위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⁸⁾ 불성론과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들도 선(禪) 고유의 개념이다. 선사들은 직접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는 농경문화 속에서 살았다는 선(禪)종의 이 같은 특징은 생태적인 사유를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선(禪)사상은 불교사의 거시적 흐름으로 보았을 때 불교사의 가장 최후에 등장하는 종파이며 전대의 모든 사상적 전통들을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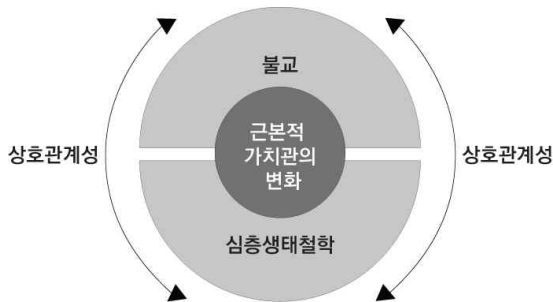
이런 관점에서 선 사상은 생태적 요소가 다양하고 풍부하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상적 정보들을 폭넓게 제공할 수 있다.

7) 박경준, 한국의 불교생태학 연구 동향, 철학사상 제 41호, 2011.8, p154

8) Paul Wldau, 박서연 옮김, 동물에게도 공민권이 있다, 불표평론 봄호, 2002년, p.177

2.2. 선(禪)생태학의 개념과 원리

2.2.1 선(禪)생태학의 개념



〈그림 1〉 불교와 심층생태철학

불교생태학은 “상호의존과 상호존중이라는 연생(緣生)과 상생(相生)의 불교정신에 입각해 제반 학문들 사이의 연계를 도모하여,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생태계의 조화와 생명해방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탐구하는 학문”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생태계란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 체계를 말하며 생산자-소비자-분해자 사이의 물질적 ‘순환성’ 과 각 단계 서로간의 ‘상호의존성’ 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형성을 위해 자기를 조절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위와 같은 생태계의 원리는 불교에서 모든 것은 연기(緣起)이므로 공(公)하며 그러므로 자비(慈悲)해야 한다 라는 원리와 구조적 본질이 같다. 불교에서의 법계(法界)는 이러한 비실체적(空) 상호의존(緣起)으로 인해 조화롭게 성립된 세계를 말하며 이는 생태계의 구조와 유사하다. 따라서 생태학과 불교는 생명 세계의 본질을 ‘상호의존성’ 으로 본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으며 접목하였을 때 창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불교와 생태학의 접목은 학제성과 철학적 실천성이 심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⁹⁾

위와 같은 배경하에서 생태철학에 선의 지혜를 접목시켜 생태계 위기 문제를 선(禪)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선생태학이다. 생태학과 선의 만남은 선수행의 직관적이며 일심으로부터 만물 및 세계로 전개되는 연역법, 생태학은 논리적이며 생태계를 아우르는 포괄성과 자연과학적 귀납법이 모두의 장점을 아울러 활용하면 진리와 존재의 실상을 밝히고 해명하는 데 각각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긍정적인 상호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¹⁰⁾ 또한 선은 기존 생태학의 이론적 추상성을 극복하기 위해 일상생활과의 접점을 추구하며 구체적 실천 방안들의 수립을 지향한다. 선사상에서 상호의존성(연기성)은 얽힘의 관계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연기이므로 자비이고 상호 의존하므로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실천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 생태학의 실천성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선생태학은 생태사상 자체를 풍요롭

9) 김종욱, 불교생태철학, 동국대학교출판부, 2004 pp.29-30

10) 헬레나 노르베르-호지 외,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p.577

게 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선사상이 다시 현재적 가르침으로 회복되도록 하는데 있다.¹¹⁾

〈표 2〉 불교생태학과 선(禪)생태학

| 개 념 | |
|---------|--|
| 불교생태학 | 상호의존과 상호존중이라는 연생(緣生)과 상생(相生)의 불교정신에 입각해 제반 학문들 사이의 연계를 도모하여,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생태계의 조화와 생명해방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탐구하는 학문 |
| 선(禪)생태학 | 생태철학에 선의 지혜를 접목시켜 생태계 위기 문제를 선(禪)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학문 |

2.2.2 선(禪)생태학의 원리

생태계란 생명체와 그 주변 환경간의 상호작용 시스템이다. 시스템이란 단순한 구조나 체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면서도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는 그래서 하위 차원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현상이 상위차원에서 급격하고도 새롭게 창발하는 복잡구조를 의미한다.¹²⁾ 창발적 복잡성은 생태계안의 수많은 조건들의 상호의존 작용을 끝없이 되풀이하기 때문에 생겨나며 생명의 본질은 ‘창발성(emergence)’ 과 ‘복잡성(complexity)와 ’ 상호의존성(independence)에 있다.¹³⁾ 또한 생태계는 약 45억년부터 지금까지 자신에 적합한 환경을 스스로 형성하고 조절을 통해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해 왔다.

또한 생태계안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¹⁴⁾생산-소비-분해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생태계의 모든 물질은 고정되지 않고 순환한다. 이는 생태계의 생물학적 구조가 ‘생산자-소비자-분해자’ 사이의 물질적 순환인 ‘순환성(circularity)과 각 단계 서로간의 ’ 상호의존성 ‘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¹⁵⁾이렇게 볼 때 전체 생명으로서의 생태계 중 무생물적 요소인 환경은 ‘항상성’ 을 그 본성으로 하며, 생물적 요소들은 ‘순환성’ 을 본질로 하고 이런 항상성과 순환성은 상호의존성에 의해 가능하므로 생태계의 가장 대표적 본성은 ‘상호의존성’ 에 있다고 할 수 있다.¹⁶⁾

앞에서 생태계의 상호의존성을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연기성(緣起性)이다. 연기성이란 모든 것은 직, 간접의 무수한 조건들의 서로 조화를 이루어 형성되는 것이라는 상호의존적 발생의 이치를 말한다.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조건들이 끝없이 개입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변화해 가는 것이라면

11) 서재영, 선(禪)의 생태철학, 동국대출판부, 서울, 2007, p.9

12) 유진 오덤, 이도원 역, 생태학, 사이언스북스, 서울, 2003, p.49

13) 김종육, op.cit, p.80

14) 생산자(producer)란 광합성 작용을 통해 유기물을 산출하고 호흡 작용을 통해 산소를 배출하는 식물을 말하고 소비자(consumer)란 식물에게서 나온 유기물과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살아가는 동물을 뜻하며 분해자(decomposer)란 식물과 동물의 사체를 해체하여 유기물을 무기물로 되돌려 놓는 미생물을 말한다.

15) 김종육, op cit, p.82

16) 프리츨프 카프라, 김용정 역, 생명의 그물 범양사출판부, 서울, 1998, p.390

영원불변한 것은 인정할 수 없고(無常) 언제나 동일하게 남아있는 자아와 같은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여길 수도 없으며(無我) 이런 연기적 추세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떨어져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실체 같은 것도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無自性, 空)이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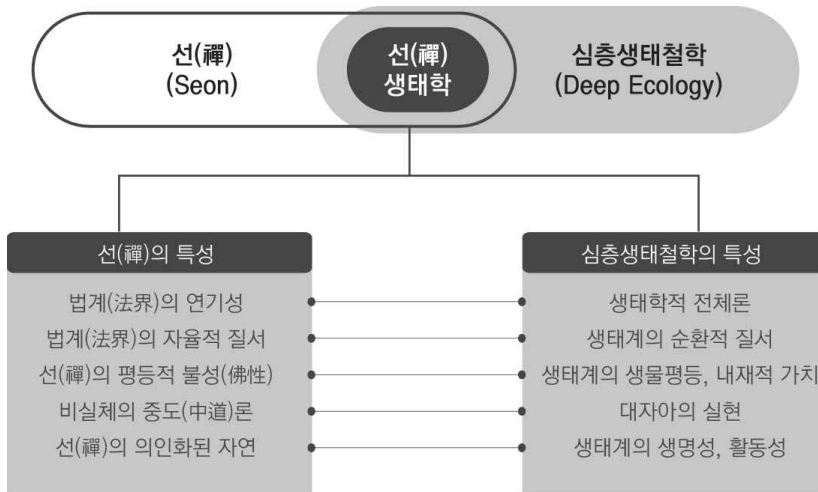
이렇게 무상(無常), 무아(無我), 무자성(無自性)이 공으로 표현되는 연기성은 조건들은 무한한 연쇄성과 조건들의 비실체성을 함축한다. 생태학적으로 볼 때 조건들의 연쇄성이 ‘순환성’을 가리킨다면 조건들의 비실체성은 ‘항상성’을 상징한다. 생태계에서 외적으로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보이는 경쟁과 포식도 결국 내면을 보면 긍정적 상호관계를 이룬다.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호작용이 궁극적으로는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상호의존이 된다면 이 관계들 간에는 상호 존중함이 당연하다. 이것은 상호의존성이 상호존중성으로 이어져야한다는 말이고 연기(緣起)이므로 자비(慈悲)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연기-공-자비’로 이어지는 불교의 가르침이고, 이를 불교 생태철학적으로 달리 표현하면 ‘상호의존성-비실체성-상호존중성’으로 표현된다. 결론적으로 생태학과 불교에서 생명은 상호의존성을 그 본질로 하여 순환성과 항상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림 2〉 생태계와 법계의 관계

2.3. 선(禪)생태학의 특성



〈그림 3〉 선(禪)생태학의 특성 도출

17) 김종욱, op cit, p.86

2.3.1. 법계(法界)의 연기(緣起)성 - 생태학적 전체론

생태학적 전체론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고 상호의존적 관계이다. 불교에서의 법계는 연기성을 전제로 하여 비실체성인 공의 단계를 거쳐 상호존중의 자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다. 법계에 대한 이 같은 개념은 선(禪)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화엄경』에서는 인드라마를 통해 관계성에 대해 논한다. "모든 부처님은 그 지혜로 일체 법계가 인드라의 그물 같다는 것을 모조리 다 아신다"¹⁸⁾ 고 기술하고 있는데 생태계에서도 생태계와 개체 생명은 인연에 따라 서로를 규정하며 성립되는 의존적 관계이며 상호 작용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이다.

『莊子』 "천지는 나와 함께 살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하나이다"¹⁹⁾이 같은 사유는 개체적 자아와 그것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통합적 사유를 대표한다. 이 같은 선의 자연관은 생태학적 전체론을 지지하고 강화해주는 사상적 전통임이 분명하다.

2.3.2. 법계(法界)의 자율적 질서 - 생태계의 통일적 질서

모로비츠는 모든 생명체는 '흩어져 사라지는 구조'라는 개념으로 존재의 관계적 질서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시냇물의 소용돌이에서 생기는 물방울은 시냇물이 힘차게 흐를 때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²⁰⁾ 즉 모든 존재는 질서를 이루며 전체 안에서 존재한다는 개념이다. 불교사상에서도 존재는 일련의 법칙 안에 존재한다고 본다. 이를 법계라고 하는데 법(法)이란 "유지하다, 보존하다"라는 동사 'Dhr'를 어근으로 성립된 산스크리트어 'Dharma'에 대한 한역으로 우주의 원리, 보편적 원리를 의미한다.²¹⁾ 보편적 의미로서의 법이란 관계성의 법칙인 연기성을 의미 한다. 즉 모든 사물은 보편적 질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를 법계라고 한다. 법계 안에서 개체들은 독자성을 유지한 채 자율적 질서를 이루고 있다.

2.3.3. 선(禪)의 평등적 불성(佛性) - 생태계의 내재적 가치

생명의 평등성과 가치의 보편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불교의 입장은 일체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결국 불성론은 나의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존귀함을 스스로 깨닫고, 존중감의 시선으로 다른 모든 존재들을 바라보고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불성은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성인과 범부가 동일하고, 생명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종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이 동등하다.²²⁾

생태철학에서도 살아 있는 동식물과 함께 무생물을 포함한 환경에 대해 내재적 가치를 부여한다. 캘리포니아의 윤리에 따르면 대양과 호수, 산, 산림, 같은 무생물적 존재는 개체의 동물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받는다. 무생물적 존재가 생태계의 순환, 안정, 유지에 있어서 개체 동물보다 더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²³⁾

18) 大方廣佛華嚴經31권, 大正藏9, p.597c

19) 탁광일, 서구사회의 환경불교와 종교, 숲과 종교, 1999, p 71

20) H.morowitz, Biology as a cosmological science, Main currents in modern thought 28, 1972. p156

21) 편집부 저, 불교와 인간, 동국대학교 출판부, 서울, 2002, p61

22) 서재영, 선(禪)의 생태철학, 동국대출판부, 서울, 2007, p258

23) 한면희, 환경윤리, 철학과 현실사, 서울, 1997, p.190

2.3.4. 선(禪)의 비실체적 중도(中道)론 - 대자아의 실현

『임제록』은 '애써 분별심을 내어 상(相)을 취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분별심으로 상을 내고 이분법적으로 보는 삶의 양식은 결국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아는 청정한 지혜는 그 지혜가 청정하여 둘도 없고 두 개로 나뉘짐도 없으며 차별도 없도 단절도 없다."²⁴⁾ 고 말한다.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본래의 통합성을 보는 중도적 가치관이 참다운 지혜의 눈이다. 또한 이것이 선(禪)에서 말하는 깨달음인 전의(轉依)를 의미하며 대상성의 사라짐을 의미한다.

프리초프 카프라(Fritjof Capra)는 자연 생태계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고 한다.²⁵⁾ 해롭다고 생각하는 생물도 자연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유기적 관계는 결국 대자아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생태철학에서 말하는 대자아의 실현이란 자타와의 이분법적 차별성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의 전체성과 하나 됨을 실현하는 것이다.

2.3.5. 의인화된 자연(自然) - 생태계의 생명성과 활동성

과학적 지식과 이성적 사유는 자연을 죽은 존재라고 정의 내렸지만 선의 인식 속에서 자연은 살아 있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중국 선종의 자연관인 도원을 살펴보면 산을 인간과 같은 선상에서 직관하면서 의인적 모습으로 기술한다.

『정법안장』에서는 "경계를 꿰뚫게 되면 청산(靑山)이 항상 움직이고, 동산(東山)이 항상 물 위를 흐르니 깊이 참구하라."

생태시인이자 근본생태가인 게리스나이더(Gary Snyder)역시 지구를 어머니에 비유하고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한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다.²⁶⁾ 즉 선(禪)사상은 자연속의 모든 존재들에 생명성을 불어 자연을 살아있는 존재로 나와 같이 불이의 활동성을 지닌 생명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표 3〉 선(禪)생태학의 특성

| 선(禪) | 특 성 | 생태철학 |
|------------------|--|--------------------|
| 법계(法界)의 연기성 | 모든 존재는 전체와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며 상호 의존성을 전제로 순환한다. | 생태학적 전체론 |
| 법계(法界)의 자율적 질서 | 모든 사물은 보편적 질서 안에서 존재하며 개체들은 독자성을 유지한 채 자율적 질서를 이루고 있다. | 생태계의 순환적 질서 |
| 선(禪)의 평등적 불성(佛性) | 살아있는 동,식물 뿐 아니라 무생물에도 내재적 가치가 있으며 평등하다. | 생태계의 생물평등주의 내재적 가치 |
| 비실체의 중도(中道)론 |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 대자아의 실현 |

24) 임제록, 상, 장경각, 합천, 2533, p.145 "一切智智 淸淨無二無二分 無 "別無斷."

25) Fritjof Capra, 김용정, 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 범양출판사, 서울, 1998, p.26

26) Gary Snyder, Turtle Island, New Directions Book, New York, 1974 p.24

| | | |
|---------------|---|---------------|
| | 중도적 사유를 통해 통합되어야 한다. | |
| 선(禪)의 의인화된 자연 | 자연속의 모든 존재들에 생명을 불어 넣어 자연의 생명, 활동성을 표현한다. | 생태계의 생명성, 활동성 |

2.4. 선(禪)생태학과 전통사찰과의 연계성

한반도에 불교가 유입되면서 승려의 수행과 포교활동을 위한 사찰이 필요하게 되었다. 초기의 불교 건축은 궁궐을 개조한 것이거나 중국에서 수입된 건축양식이 주류를 이루면서 일반 대중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평지 가람이었지만 통일신라 후대부터는 선종과 풍수지리설의 유행으로 산지가람이 발달하면서 한국의 사찰건축을 특징짓게 되었다. 조선에는 불교 탄압으로 도시주변의 사찰들이 폐쇄되고 일부의 산지가람만 남게 되었는데 이러한 연유로 한국의 전통 사찰은 곧 산지 가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풍수지리설에 의거하여 입지를 정한 한국의 산지가람에 있어서 물과 산이라는 생태적 요소가 사찰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한국의 산지 가람은 불교건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하였으며 이런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은 길과 건축이다.

한국의 사찰을 구성하는 산과 물, 그리고 길과 건축은 그 자체로서 수행의 도구이자 사찰이었으며, 현대적 의미에서 말하는 생태적 환경 그 자체였다. 또한 수행체계로서의 사찰의 구성형식은 불교적 우주관, 세계관이 물질적으로 형상화 된 것으로써 선(禪)종 사찰은 선(禪)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²⁷⁾

〈표 4〉 전통사찰의 선(禪)생태학적 요소

| 선(禪) | 특 성 | 요 소 |
|--------|----------------------|--|
| 자연적 요인 | 불교의 자연관에 입각하여 사찰이 입지 | 지세, 지형, 방위, 온도, 습도 |
| 사상적 요인 | 불교의 교리를 이용하여 사찰을 구성 | 정도, 화엄사상, 선사상등을 바탕으로 공간배치, 공간구성 및 상징적 요소들이 형성 |
| 상징적 요인 | 풍수지리론에 입각하여 공간을 구성 | 물, 길, 산, 건축(공간, 형태적, 자연재료)요소들에 의해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며 배치와 공간구성을 함 |

27) 동국대학교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 학제적 연구로서의 불교생태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서울, 2007, pp.252 - 273

3. 선(禪)생태학과 공간 _Deduction

3.1 선(禪)생태학의 공간조형개념 도출과정

앞에서 고찰한 선생태학의 5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전통사찰의 특성을 연계한 사찰의 공간조형개념으로 도출하는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선(禪)생태학의 공간조형개념화

| 선(禪) | 법계의 연기 | 법계의 자율적 질서 | 선(禪)의 평등적 불성(佛性) | 비실체의 중도(中道)론 | 선(禪)의 의인화된 자연 |
|-------------|-----------------------|------------------|--------------------|-------------------|---------------|
| 생태철학 | 생태학적 전체론 | 생태계의 통일된 질서 | 생태계의 생물평등주의 내재적 가치 | 대자아의 실현 | 생태계의 생명성, 활동성 |
| 선(禪)생태학적 특성 | 상호관계성 상호의존성 순환성 | 질서 균형성 역동성 | 본질 근원 | 초월성 통합성 포용성 | 경외감 생명감 |



| 선(禪)생태학의 공간조형개념 | 순환적 제법(諸法) | 무상(無常)적 균형 | 무여(無餘)의 부정 | 실상무상(實相無相)의 공허(空虛)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적 흐름 • 중중무진(重重無盡)의 관계 • 묘유(妙有)의 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 사라짐 • 자유로운 공존 • 무이(無二) 적 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교의 기교 • 일상의 현시 • 혼재된 일상(日常)과 비일상(非日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실현 • 무문문(無聞聞)의 경지 |

연기(緣起)적 전체성은 조직된 전체 속에서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관계의 체계이며 이와 같은 개념은 오늘날 생태철학에서 바라보는 생태계의 상호관계성의 개념이나 전일론적 세계관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연기(緣起)적 전체성은 안정화된 자기 완결적 체계에서 관계 맺기라 할 수 있는데 주변 환경과 혹은 공간들과 관계 맺기를 통하여 변화된 자연을 공간으로 유입시키거나 공간과 공간 혹은 공간과 자연, 인간과 자연, 인간과 공간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이러한 관계 맺기는 ‘인간의 체험에 바탕을

두고 공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다양한 공간의 연속레벨의 변화나 시각적 공간의 깊이 변화등과 같은 방법으로 공간의 연속성을 표현하거나²⁸⁾ 외부에서 내부까지 이어지는 자연재료와 색은 외부공간을 환경적, 시각적으로 연결 시켜 주변 환경과 동화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선의 자연관을 살펴보면 자연을 의인화 시키고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여겨 경의심을 표하고 생태계에서는 자연을 '대자연' 이라고 칭하며 만물의 모체로 여긴다. 자연과 인간을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살아있는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연의 생명, 활동성을 극대화하고 자연의 지세에 순응하며 건축물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였으며 고정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구조를 취한다. 공간의 위계를 제거함으로써 대상들 간의 고정된 관계, 형식 등을 피한다. 이러한 공간조형 개념이 '순환적 제법(諸法)'이라 할 수 있다.

생태계와 법계 안에서의 개체들은 질서를 유지한 채 전체안에 존재한다. 생태계는 복잡성으로 인해 혼돈의 세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통일된 질서를 이루어 나간다. 불완전과 완전의 경계를 오가며 역동적으로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즉 생멸 변화하는 우주 속에서 삼라만상의 본질을 터득함으로써 눈앞의 불완전이 아니라 '한번 완성에 이른 것이 안으로부터 자기의 완결성을 깨뜨리고 다시 본래의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완성의 부정으로서의 미완성, 혹은 불완전의 미이다.'²⁹⁾ 결국 '무상(無常)적 균형'이란 극단적인 상황들 사이의 서로 조정된 무형적인 상호균형을 의미하며 불규칙적인 변화 가운데서도 어떠한 질서를 갖는 개념으로 자유로운 공존, 시각적 사라짐, 비대칭적인 불균형적 공간 개념이다.

'공간에서의 불성(佛性)은 존재의 본질 혹은 되돌아감, 없으면서도 있고 있으면서도 없는 존재를 상징하며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³⁰⁾ 따라서 공간에서의 불성(佛性)은 무욕적 공간개념을 나타낸다. 무욕은 소박하고 검소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형태적 작위에서 벗어나 무위에 근간을 둔 절제된 순수형태를 추구하며 공간의 본성으로의 회귀를 지향한다. 선(禪)에서 무여(無餘)란 더할 여지가 없는 세속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며 무여(無餘)의 부정은 이 상태를 부정함으로써 본질, 근원의 상태를 추구하는 공간 특성을 '무여(無餘)의 부정'으로 정의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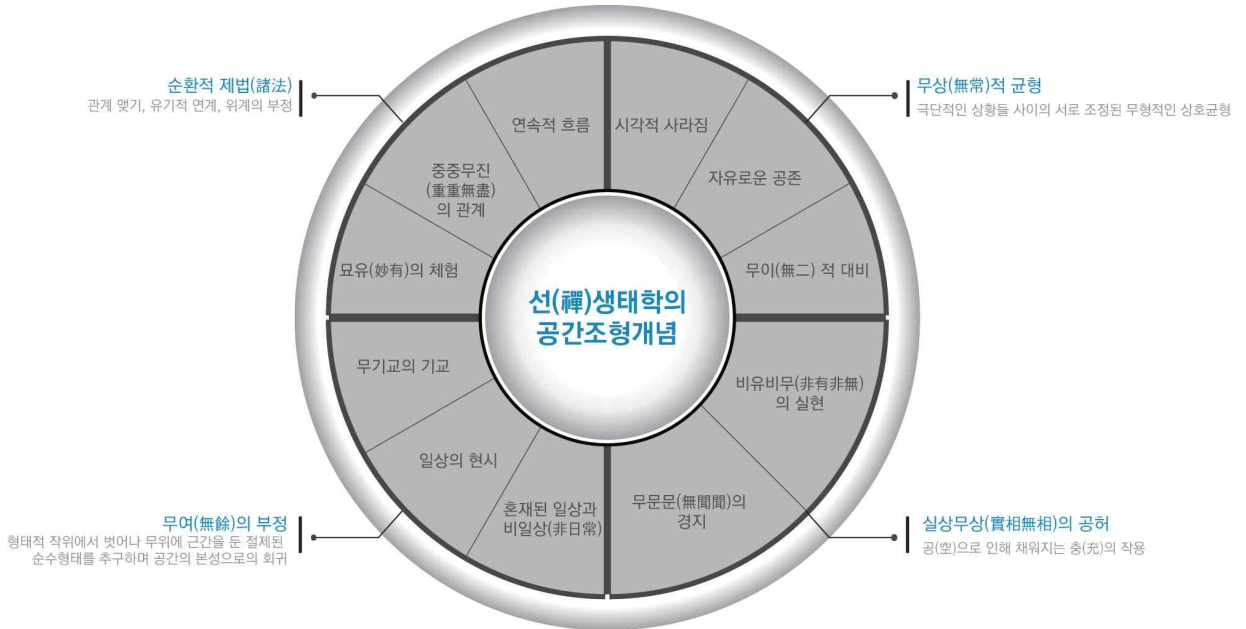
선(禪)에서는 생(生)과 사(死), 유(有)와 무(無)의 문제처럼 서로 대립되는 두 개념이 존재할 때 어느 한 쪽을 절절대적 근원이라고 설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쪽에 치우친 편견이기 때문에 중도적 사유를 통해 통합되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며 이러한 무한한 전체성의 세계가 공(空)이다. 공(空)은 무한의 공간인 우주적 관점에서의 자연의 외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그 내적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만물 생성의 근원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空)은 형상의 세계에서는 비움으로 작용하지만 본질의 세계에서는 충(充)의 작용이다. 자신은 빈 형상, 빈 관념이지만 그 안에 모든 세계를 다 포함한다.' 마치 소리는 소리 없음에서 시작하고 다시 소리 없음으로 사라지고 물결은 물결이 일지 않은 곳에서 생겨나 다

28) 임석재, 한국전통건축과 동양사상, 북하우스, 2005, pp.93-94

29) Yanggida Seizan, 한보광역, 禪과 일본사상, 불광출판부, 서울, 1996, p.34

30) 강기태, 현대 식음공간의 실내디자인에 있어 동양적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5, p.65

시 물결 없는 곳으로 사라지듯이 공(空)에는 비움과 채움이 모두 있다.³¹⁾ 공간에서의 본질이란 비움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비움은 공간의 한계와 확장성은 경계의 비움, 즉 경계의 없음으로 접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공간 개념을 '실상무상(實相無相)의 공허'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그림 4〉 선(禪)생태학의 특성 도출

3.2. 선(禪)생태학의 공간조형개념

(1) 순환적 제법(諸法)

순환적 제법(諸法)이란 모든 것이 어떠한 분별이나 대립되는 것이 아닌 같은 관계, 동류이며 한결같고 전체 안에서 모든 것이 순환하는 개념이다. 단위 공간과 공간 또는 외부와 내부 공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 공간을 통하여 관계들이 하나를 이루며 경계가 없이 무한히 확장되는 공간과 이를 통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 맺음은 곧 자연, 인간, 공간의 전일적 관계를 형성한다.

사찰은 산세와 계곡, 하늘과 바람, 법력과 불심, 재력과 물심 등 각 사찰이 맞이하게 되는 여러 연기의 관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로 나타난다.³²⁾

① 연속적 흐름

경계를 열어 놓음으로 다른 개체의 의미를 흡수하고 주변과 관계를 맺으면서 공간은 연속성을 형성한다. 진입부에서의 연속성은 여러 개의 산문을 차례로 통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5〉 〈그림 6〉에서 보듯 범어사 불이문은 서서히 상승하여 올라가는 길과 함께 공간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으며 주

31) 서종순, 2000년 공사상의 의미, 인문학 연구, Vol.6 No.,2001

32) 임석재, op cit, p. 110



〈그림 5〉 범어사 불이문 〈그림 6〉 범어사 불이문 길

변에 세워진 높은 나무와 담장들과 관계를 맺으며 시선을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끈다. 즉 부분과 전체, 원인과 결과의 상호관계성에 의해³³⁾ 건축물과 자연 인간이 하나를 이룬다.

자아가 없어진 선(禪)의 상태는 아름다움의 규범으로 삼았던 자연처럼 무위계이며, 형식적인 위압과 충격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 타자라는 대립적인 개념은 기본적으로 자아가 설정되어야 시작하는 개념이다. 그 어떤 대립적인 힘도 위협도 와해되어 버린 완전성은 타자에 대한 인식조차 느낄 수 없는 선의 상태와 조우한다.³⁴⁾

② 중중무진(重重無盡)의 관계

중중무진(重重無盡)의 관계란 서로가 서로에게 끝없이 작용하면서 어우러져 있는 개념으로 인위적 가공이나 변형을 배제하고 자연스러운 자연의 모습 그대로에 가치를 두는 개념이다. 인위적으로 풍경을 만들어 내거나 가두는 개념이 아닌 풍경 그대로를 느끼는 형식이며 위계의 제거를 통해 실현한다.

종파를 불문하고 모든 형식의 불교에 스며들어 있는 기본개념은 부정(不定)성이다.³⁵⁾ 깨달음을 얻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비움이 요구된다. 이러한 비우기의 과정이나 목표는 단순한 부정(不定)이 아니다. 이는 긍정의 노력이며 초월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즉 부정(不定)에서 출발하여 긍정을 깨달아 긍정도, 부정(不定)도 초월하는 불교적 의지이다.

이는 근본생태론에서 말하는 전일적 세계관 즉 자연과 연속된 공간개념이며 정신적으로 연계된 무한대의 영역으로 자연과 나를 하나로 인식하면서 제한된 현상세계인 유와 무가 하나로 귀결되는 무위자연의 일치현상으로 나타난다.³⁶⁾

이를 선종사찰에서 살펴보면 선(禪)적 깨달음의 본질은 대상성의 제거에 있으며 건축에서 위계의 제거로 인해 이를 실현한다. 위계는 형식으로서 고정성을 지니며 형식은 대상들 간의 고정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³⁷⁾ 선종사찰에서는 이를 지양했다. 위계의 부정은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을 우회하게 함으로서 중심과 주변 구별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여 주변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며, 모든 장소가 중심이

33) 임석재, op cit, p.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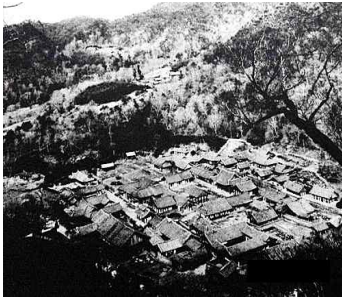
34) 김개천, 명목의 건축, 컬처그래피, 서울, 2011, p.163

35) 강기태, op cit,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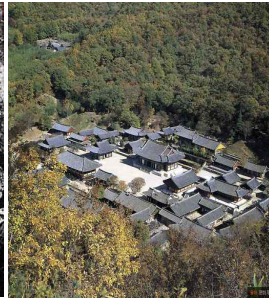
36) 임지영, 20세기 말 공사상으로 표현된 쯤 스타일,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01, p. 9

37) 안중환, op cit, p. 74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 질서의 다양함을 제공한다. 또한 위와 같은 관계는 <그림 7><그림 8>처럼 주변 환경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관계 맺게 만든다. 이는 교종사찰인 <그림 9>의 위계적 질서에 의한 배



<그림 7> 송광사 현재



<그림 8> 송광사 6.250이전



<그림9> 해인사 전경

치방식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또한 선(禪)에서는 인간은 문명을 포용하는 자연주의가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고 했으며 예로부터 선(禪)을 수행하는 가장 선호되는 장소가 자연이었다. 즉 자연과의 조화를 넘어선 자연과의 일체감을 추구하였다.

개심사 진입공간은 산길 속의 자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진입 공간을 만들었다. 절의 입구에는 일주문도 천왕문도 없이 돌덩어리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돌덩어리를 지나 산길을 따라 <그림 10>에서와 같이 꼬불꼬불한 돌계단을 오르다 보면 계곡과 소나무들을 만나는데 이는 사찰 진입 공간의 당간지주나 부도와 같은 소품의 역할을 대신한다. 돌계단을 다 오르고 나면 직사각형의 긴 연못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그림 11>의 외나무다리가 놓여있다. 이 외나무다리는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변 조경들과 조화를 이룬다.



<그림 10> 개심사 외나무다리



<그림 11> 개심사 진입부

③ 묘유(妙有)의 체험

비 물성(非物性)적 특성에 의한 운동하는 시각적 효과로서 상호 간섭과 중첩 및 통합의 특성을 의미한다. 물질세계의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비물성(非物性)적 표현은 단지 시각만을 목적으로 한 미학적 유희라기보다는 상호 연기(緣起)적 관계에 있는 존재와 존재가 서로를 직지(直指)에 의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암묵(暗黙)적 방법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게 된다.³⁸⁾

38) William J.Curtis,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haidon press, 1996

미확정적인 공간을 매개로 빛과 미확정적인 존재의 움직임과 시퀀스를 중첩하여 복합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인간과 사물, 환경이 상황이 얽혀 주변과의 암묵적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또한 시각 외에도 청각이나 후각 등이 공간에 중첩되기도 하는데 나무의 향기, 연못의 낙수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바람소리 등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방법으로 상호관계에 있는 존재와의 암묵(暗黙)적 경험이 가능해진다.

중첩된 건물들을 보면 실내로 들어오는 빛이 두겹의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다양한 빛과 실루엣에 의한 예측 불가능의 기대감과 긴장감을 조성하는 묘유(妙有)적 특성이 어우러져 인간과 환경이 암묵(暗黙)적 경험을 하게 한다.

인간과 건축과 자연 사이에서의 존재의 관계성을 다양한 방법에 의해 암시하는 것으로 우회적 동선을 유도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미확정적 요소 등 변화하는 요소를 체험하게 하는 형식이다. 또한 물에 투영된 건물의 이미지에 의해 시각적 경계의 모호성과 확장성을 연출하며 표면의 반사에 의해 외부환경을 투영시킴으로써 무상의 요소인 빛, 계절의 변화, 날씨 등 자연요소를 가미하여 인간의 시각 체험을 다양하게 유도한다

사찰내부와 외부의 경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당간지주에 의한 전이 공간, 계류를 건너는 전이 공간 등은 위와 같은 공간 개념을 체험하게 한다. 선종사찰은 산속에 위치하여 있어 계류를 건너거나 오솔길을 지나야 하는데 다리를 건너는 행위 뿐 아니라 진입에 있어 울창한 삼림 속에서 들리는 물소리는 사찰로 향하는 신도들에게 심리적 전이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2) 무상(無常)적 균형



〈그림 12〉 선암사 중창건도 일부 〈그림 13〉 송광사 채색지도 일부

① 시각적 사라짐

생태계안에서 생산자-소비자-분해자의 관계는 산발적이고 복잡하여 언뜻보기에 불규칙한 혼돈의 관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생태계의 구조는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관계성의 체계이다. 즉 개체들간의 미세한 변화, 순환에 의해 이루어진 구조체이다.

선(禪)적 깨달음에 있어 대상을 고정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사라지게 만듦으로서 가장 일차적인 대상성을 제거한다. 이는 건축에서 인식주체의 이동에 의해 대상이 시점에서 사라지도록 만들거나 또 다른 대

상을 이용하여 목표가 되는 대상을 시점에서 제거하는 방법³⁹⁾을 사용하는데 진입로의 굴절, 건축물의 중첩, 수평적인 관계성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 고정되지 않은 시각적 자유로움은 자연스럽게 순환적이고 자율적인 질서를 만든다.

위와 같은 시각적인 고려는 또한 <그림 12>, <그림 13>에서 보듯 인식주체와 건축물, 주변과의 무형적인 관계에서 나타난다.

② 자유로운 공존

자유로운 공존이란 공간배치와 공간구성, 입면상의 비대칭을 말한다. 선(禪)종 사찰은 교(敎)종 사찰과 달리 교리적 위계와 같은 형식이 중요시 되지 않는다. 선불교의 사찰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 바로 일상이 우선한다. 이는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서 일부전각을 첨가하거나 제외시켜도 전체적인 구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사찰의 배치는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해왔다. 전쟁 혹은 정책에 의해 소실되거나 복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종 사찰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도 축의 굴절이나 공간 흐름의 조절을 통해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부분적 변형은 잘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선암사의 가람 배치는 무질서한 가운데 질서를 갖추고 있으며 막힌 듯 열려 있는 공간이다. 전각들이 독립적 구조를 지니면서도 하나로 어우러져 일체감을 이루고 있다. 자연 지세에 순응했기 때문에 자연 지세에 맞추다 보면 대칭 구도는 자연히 피할 수밖에 없다.



<그림 14> 봉정사 영산암 입면



<그림 15> 봉정사 영산암 입면

또한 자연재료의 사용은 건물의 비대칭적 대칭을 만든다. 가공하지 않은 나무, 돌등의 사용은 <그림 14>, <그림 15>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에서와 같이 영산암의 입면 구성은 우화루를 중심으로 대칭인 듯 보이면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는 비대칭적 입면구성을 하고 있다. 흰 회벽과 짙은 갈색 기둥과 보가 이리저리 그어져 비대칭적 분할이 이루어져 있다.⁴⁰⁾ 이는 무질서한 듯 보이나 그 안에서 질서를 이루고 있다.

③ 무이(無二)적 대비

무이(無二)는 상대적 개념을 쌍으로 대응시키는 대법을 통하여 중도(中道)의 입장을 표명한다. 이는 선

39) 안중환, op cit, p. 71

40) 임석재, op cit. p. 72

사들이 언어 관념의 구속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택했던 모순적 상황과 맥을 같이 하는데 극한 상황을 연출하여 언어 관념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여 희론을 적멸(戲論寂滅)하는 방법으로 인해 파사즉현정(破邪即顯正)에 이르게 한다. 이는 혜능의 ‘세상에 대립되는 쌍(雙)개념을 통한 참 본성이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방법’ 과도 통한다.⁴¹⁾

건축물에서 쌍(雙)은 극적인 대비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건축물에 의해 가득찬 공간과 빈 공간의 대비, 건축물에서 느껴지는 중량감과 중량감을 극복하기 위한 빛과 색채, 자연요소의 도입 등을 통해 상대 개념을 대응시켜 양면을 떠난 이 둘의 상호 관계 속에서 무이(無二)적 대비를 체험하게 된다.

(3) 무여(無餘)의 부정

종교 건축은 역사적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데에 치중해 왔다. 강력한 축성과 위계, 고정된 형식, 화려한 장식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선(禪)에서는 모든 존재의 본질, 근원, 내면에 집중한다. 즉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덜어내고 걸러낸 후에 떠오르는 미의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전후 좌우의 균형을 중요시 하지 않고 소위 기하학적인 아름다움보다 무엇인가 가지런하지 못하고 들쭉날쭉하면서도 묘하게 뛰어난 곳이 있으며 그러면서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형식이다.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며 무형식, 형식의 초월을 의미한다. 즉 항상 스스로를 안으로부터 부수고 완전성을 거부하는 구조를 의미하며 완전 이상의 표현이다.⁴²⁾건축에 있어서도 건축물 자체의 본질에 충실한 형식이 ‘무여(無餘)의 부정’ 건축이다.

① 무기교의 기교



〈그림 16〉 거조암 영산전



〈그림 17〉 거조암 영산전 내부

외부와 모든 맥락들을 끊어 내어 공(空)의 상태를 이루어냈다면 이제 내부로 인식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적 대상들을 제거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식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어떠한 것도 개입하지 않아 상즉상입(相即相入) 즉 서로에게 투명하게 드러나 일치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투명하다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 지닌 속성이나 시각적 경험에 의해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대상이 지닌 장식, 형식, 인위적 조작들을 배제하여 실제의 모습이 다른 인자와 관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를 건축물로 본다면 인식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모든 불필요한 의장적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형식의 완전함은 인간의 주의를 형식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내부에 담긴 본질, 근원에 집중하

41) 서종순, op cit, 2001

42) 아나기다 세이잔 저, 한보광 역, 선과 일본문화, 불광출판부, 1995, p. 156

기 어렵게 한다. 불전영역의 경우 대중의 예불공간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장식적 요소를 모두 제거할 수는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배려를 해줄 뿐이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탑과 같은 조형물은 그대로 놓아두되 새로이 조영(造營)하지는 않으며 조경과 같은 허식은 가급적 배제하여 마당이 청정함을 유지하도록 한다. 수행역역에 있어서도 오직 수행을 위한 삶의 모습만 존재할 뿐 불필요한 장식이나 허식들은 배제되었다.

〈그림 16〉의 거조암 영산전은 표현 방법은 지극히 평범하여 아무 것도 추구하지 않은 무의도와 무작위의 건축이다. 영산전은 나타내려 한 것이 없다. 삼면은 둔덕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며 정면은 작고 초라하다. 즉 무욕적이고 소박한 모습이다. 또한 내부는 〈그림 17〉과 같이 별다른 장식 없이 배흘림된 나무 기둥들과 서까래가 노출된 지붕틀, 그리고 기둥들과 지붕틀을 연결하는 단순한 나무 부재들만으로 모두가 구조적인 부분들이다. 불필요한 부재들도 없고 단청도 없다.

㉔ 일상의 현시

탈일상성이란 종교건축을 포함하여 모든 권위적 상징성을 갖는 건축형식이 지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배치에 있어 중심적 축에 의한 구도, 권위적인 비례, 일상적 기능의 배제, 과도한 스케일이나 장식등과 같은 고정된 형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禪)은 상대성을 진리로 승배하며, 비언어적 수행과 철저한 개인적 체험을 중시한다. 선(禪)은 행위요 생활이며 평소의 경험 그 자체이다.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일상적인 행동이다. 선에서 깨달음은 실체가 바로 나와 더불어 있기 때문이며 깨달음은 그러한 실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로부터 나를 분리시켰던 시간, 인습, 관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 낸 간극을 좁혀 일상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이다.⁴³⁾

선(禪)은 인간의 평범한 생활, 바로 그 자체를 떠나지 않는 곳에 있으므로 선(禪)사상은 그대로가 선(禪)행위이며 선(禪) 행위 그대로가 선(禪)사상이다.⁴⁴⁾

선에서 말하는 자유, 자제는 무엇인가를 의식하거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음을 말한다. 의식하면 아무래도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백장 선사가 목표한 바는 그런 사로잡힘을 벗어나서 전혀 아무것에도 걸리지 않는 일상생활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자는 것이다. 생활이 곧 선이다.⁴⁵⁾ 따라서 참선하는 사찰의 생활 역시 일상의 기능에 집중한다. 일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때론 수정되기도 하고 필요 없는 기능들은 퇴화되기도 하면서 변화하는 힘을 만들어 낸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교종사찰을 구성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적 위계나 신앙체계의 형식이다. 그러나 선종사찰에서는 일상이 우선한다. 즉 그 안에서의 삶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집중한다. 선방의 부엌은 대개 주출입구에 위치하여 있으며 선방의 모든 실들이 중정을 향하고 있는 점, 창고와 같은 기능들을 숨김없이 드러낸 점⁴⁶⁾ 등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현시하고자 하였다. 결국 수행공간의

43) 한형조, op cit, p. 121

44) 스즈끼 다이세쯔, 선의 진수, 고려원, 1987, p.13

45) 가마다 시게오, 기노 가즈요시 지음, 양기봉 옮김, op cit, p. 102

46) 안중환, op cit, p. 84

내부적 관계에서는 이들을 감추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러한 배경하에서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였다. 선암사 곳곳에 있는 물확 역시 일상의 표현으로서 수행자들이 물을 길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상들 까지 의미를 두고 있다.



〈그림18〉 선암사 달마전의 물확

③ 혼재된 일상(日常)과 비일상(非日常)

선(禪)수행의 첫 단계에 요구되는 사연(捨緣)의 특성은 마음에서 모든 생각과 인연을 다 놓아 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기존의 양식과 형식을 털어냄으로써 일상(日常)적 현실 속에 비일상(非日常)적 공간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공간개념은 이분법적 원리가 아닌 일원론적인 세계관의 질서로 통합하여 일상(日常)에서 요구되는 비일상(非日常)적 전환을 유기적이고 연기(緣起)적으로 일상(日常) 속에 자연스럽게 끌어들인다.

사찰의 길과 여정은 일주문에서 시작해서 대웅전까지 이어지는 진입 공간에 설치된 일련의 건축적 장치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공간 속에는 종교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건축적 여정이 연달아 나온다. 그 과정에서 긴장감은 종교적 상승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상승감은 결코 강압적이거나 직설적이지 않다. 일직선적으로 긴장감이 높아만 가지도 않는다. 자연스럽게 자연과 인공과 하나 되듯 긴장과 이완 일상(日常)과 비일상(非日常)이 교대로 나타나며 부처님 앞으로 인도한다. 특히 산지 사찰이나 대찰의 경우에는 다양하고 강한 설득력을 갖는 스토리를 보여준다.

사찰 진입 공간의 건축적 스토리는 산문과 소품이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일련의 산문에서 건축적 스토리는 종교적 상승감을 자아내는 직설적 상징성으로 나타난다. 속세와의 경계인 일주문을 지나면 성역으로 들어온다는 작은 긴장감이 시작된다. 그러나 아직 긴장감은 크지 않다. 주변에 친숙한 자연의 모습과 ,송림, 계곡등이 긴장감을 떨어준다.⁴⁷⁾일상(日常)과 비일상(非日常)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천천히 비일상(非日常)으로 향하는 전이의 첫 번째 과정이다.

두번째 문인 천왕문을 지나면서 긴장감은 높아진다. 잡귀를 발로 밟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사천왕상을 보면서 괜히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긴장감이 들며 속세의 고뇌, 일상(日常)성을 서서히 잊게 된다.

47) 임석재, op cit, p. 221

마지막을 해탈문 앞에 서면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이 전해온다. 그러나 이것은 강압의 긴장감이 아니라 종교적 상승감을 절정에 둔 긴장감이다. 해탈문 너머로 불전의 처마가 살짝 보이기도 하고 문 대신 눈금이 서 있는 경우라면 사물도 살짝 눈에 들어온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들 뿐만아니라 향 냄새, 풍경소리와 같은 후각, 청각적 요소들은 완전한 비일상(非日常)적 공간으로 인도한다. 은유적 암시와 긴장감의 완급 조절은 전이과정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든다.

또한 사찰내부에서도 끊임없는 전이가 이루어진다. 길 사이사이 긴장이 높낮이를 조절하는 소품적 장치들은 이 과정을 돕는다. 물이 나오면 물을 그대로 수경요소로 활용하여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잠시 자연의 일부가 되어 나들이 기분이 들게 한다. 그러다가 다시 당간지주, 부도, 탑등과 같은 종교적 장치가 나오면서⁴⁸⁾ 다시 비일상(非日常)으로 전환된다.

처음에 사찰에 들어서면 사찰의 각 전각의 독립적 완결성에 집중하고 각자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이 과정을 통해 전각 하나가 아닌 전체적 관계성에 집중하게 되며 절대적 고착에서 벗어나 상대적인 관계성, 시시각각 변하는 상태에 이른다.

(4) 실상무상(實相無相)의 공허

실상무상(實相無相)의 공허(空虛)는 공간의 한계와 확장성, 무(無)의 형상으로 접근 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비워진 공간은 다분히 내향적이며 목적적이다. 고정된 성격이 아닌 어떠한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비움의 의해 비가시적인 것들이 의미의 관계를 맺는다. 즉 비워진 공간을 통해 시각적으로는 환경을 받아들이고, 심리적으로는 그 공간으로부터 확장되어 나가는 환경성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⁴⁹⁾

①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실현

비유비무(非有非無)는 어느 곳에도 자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 즉 무(無)가 되었을 때 자신은 영원 그 자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비유비무의 실현개념은 경계의 프레임화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주변 환경을 끌어들이어 건물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즉 한정지어진 공간을 통해 주변 환경을 받아들이는 원리이다. 이것은 분석과 윤리에 의한 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관조를 통하여 사물의 본성을 바라봄으로써 이원론적인 사고에 의해 가려져 있던 전혀 새롭고 변화된 세계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⁵⁰⁾ 이는 환경적 공(空)을 의미하며 관조성이란 대상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상과의 교감이 무관심성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바라보는 것이며 대상에 붙잡힘이 없어 대상으로부터 경험, 가치 등을 깨닫는 기쁨을 말한다.⁵¹⁾ 대상을 거리에 두고 냉정하게 근원적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관찰하는 것이며 미학에서는 미를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한다. 특히 비어있음은 사물과 자신을 합일시키려 하며 사물을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고 관조를 통해 또 다른 구도의 세계와 공간의 체험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48) 임석재, op cit, p. 223

49) 안향미, op cit, p.66

50) 박소현, op cit, p.6

51)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p 328

조형에서도 선(禪)적 명상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관조적 비움으로 인해 솔리드한 건물 속에 연결되어 있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시공의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시간과 공간, 인간, 자연을 모두 포용하는 공간 형식을 만들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② 무문문(無聞聞)의 경지



〈그림19〉 개심사 범종각



〈그림20〉 개심사 범종각 기둥

무문문(無聞聞)의 경지란 관음보살이 무설설(無說說)하고 남순 동자가 무문문(無聞聞)하듯 한 번도 입을 연적이 없고 한 번도 귀를 기울인 적이 없이 법을 전하고 법을 받았다는 의미로 자연은 말하는 바 없이 말하고 듣는 바 없이 듣는 존재이다.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와 같은 의구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형상으로서 건축물과 자연이 완전한 공(空)상태가 되는 경지이다. 즉 건축물의 중량감이나 형식 따위에 얽매이지 않는 형태적 공허의 상태가 되며 벽이 없이 기둥으로만 이루어진 비어있는 공간과 지붕의 하층을 부재에 골고루 분산시키는 기본 구조와 건물의 무게를 시각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지붕의 처마를 길게 뻗쳐서 날아오르는 상승의 이미지를 만들어 형태적 공(空)을 실현한다.⁵²⁾

〈그림 19〉, 〈그림 20〉에서 보듯 개심사 범종각을 구성하는 네 개의 기둥의 휘어진 나무는 자연산 나무를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지어졌다. 공(空)으로 모두 비워내고 휘어진 기둥 사이로 사이로 무한한 자연의 변화와 풍경을 담아낸다. ‘변신과 변형을 거치는 것보다 스스로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면서 다양한 현상을 만드는, 존재하지 않는 비형상으로 존재한다.’⁵³⁾

52) 김영기, op cit, pp. 296 -300

53) 김개천, op cit, p.89


〈표 6〉 선(禪)생태학의 공간조형개념 특성

| 공간조형개념 | | 특성 |
|----------------|----------------------|--|
| 순환적 제법(諸法) | 연속적 흐름 | 건축물의 흐름, 공간의 레벨변화, 길과 여정, 점증 |
| | 중중무진(重重無盡)의 관계 | 건축물-자연-인간사이의 관계성, 순환성, 축의 굴절, 수평적 관계, 위계의 부정 |
| | 묘유(妙有)의 체험 | 우회적 동선을 유도하여 시간적 흐름이나 미확정적인 요소 등 변화요소를 체험 볼륨이 한눈에 읽히지 않도록 의도, 건물의 모서리를 흐리게 하는 방법, 폐쇄적 공간에 낸 창으로 인해 인식의 경계 확장 다양한 빛과 실루엣에 의한 예측 불가능의 기대감과 긴장감, 나무의 향기, 연못의 낙수 소리, 바람 소리 등 |
| 무상(無常)적 균형 | 시각적 사라짐 | 진입부의 굴절, 건물을 시점에서 사라지게 배치, 누하진입 |
| | 자유로운 공존 | 배치 및 입면의 비대칭성, 비대칭의 조화 |
| | 무이(無二)적 대비 | 극적인 대비, 과대 스케일과 빈 공간의 대비, 매스에서 느껴지는 중량감과 중량감을 극복하기 위한 빛과 색채의 도입 |
| 무여(無餘)의 부정 | 무기교의 기교 | 탈기교성, 자연의 재료가 주는 아름다움, 소박한 색과 재료, 의장적 요소 제거, 마당의 청정 |
| | 일상의 현시 | 위계에 형식에서 벗어난 일상생활의 중시 |
| | 혼재된 일상(日常)과 비일상(非日常) | 산문의 진입, 일상과 비(非)일상의 전환, 끊임없는 부정 |
| 실상무상(實相無相)의 공허 |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실현 | 환경적 공(空), 관조적 비움으로 인해 주변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형식 비워진 공간은 시간, 공간, 자연과의 통합체를 형성, 시공의 모호함 |
| | 무문문(無聞聞)의 경지 | 형태적 공(空), 반 중력적인 형태의 건축물, 건축물의 비형상(非花形)화 |

4. 전통사찰에서 나타나는 선(禪)생태학적 표현 사례분석 _Analysis

4. 사례분석

〈표 7〉 선(禪)생태학의 공간조형개념 사례분석

| 선암사 심검당 | |
|--|------|
| 심검당은 마음을 닦는다는 의미로 선원의 삶 즉 노동과 생산, 식품과 기구의 저장, 공양과 그를 위한 취사, 그리고 종교생활 으로서 예불과 참선, 집회 등이 이루어지던 장소이며 ⁵⁴⁾ 철저히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었으며 실제 생활의 기능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 |
| 이미지 | |
|  | |
| 공간조형개념 | 표현내용 |

54) 김봉렬, op cit. p.296

선(禪)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전통사찰의 공간조형개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ce Formative Concepts of Traditional Temple viewed in the Seon Ecology

| | | |
|----------------|----------------------|---|
| 순환적 제법(諸法) | 연속적 흐름 | ㄷ자형 건물의 배치, 외부에서 내부까지 이어지 자연재료와 색은 외부공간을 환경적 시각적으로 연계하여 자연스러운 흐름을 형성 |
| | 중중무진(重重無盡)의 관계 | 좁은 길과 담을 통해 진입하며 자연 경사 그대로를 지남. 폐쇄와 개방을 반복하는 가람배치 |
| | 묘유(妙有)의 체험 | 내부의 볼륨이 한눈에 읽히지 않도록 의도한 배치와 동선은 예측 불가능의 기대감과 긴장감을 조성 |
| 무상(無常)적 균형 | 시각적 사라짐 | 심검당은 겹겹이 놓여진 건축물과 중첩되기도 하고 지붕선 등이 이어지기도 하며 사라졌다 나타났다가 반복 |
| | 자유로운 공존 | 부엌문을 통과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폐쇄적 공간이지만 외부와의 직접적 교류가 가능한 대방과 마루를 두는 공간구성 |
| | 무이(無二)적 대비 | 폐쇄적인 구조의 공간에 낸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극적인 느낌을 연출 |
| 무여(無餘)의 부정 | 무기교의 기교 | 별다른 기교나 장식 없이 소박, .창고면적의 확보를 위해 입체적인 중층의 구조를 하여 마당에서 번잡한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마당의 청정함을 실현 |
| | 일상의 현시 | 스님들의 삶과 수행의 장소로 구도적 생활 기능에 집중 |
| | 혼재된 일상(日常)과 비일상(非日常) | 일상생활에 대한 고려(중층구조, 승방의 배치, 후면 경작지와의 레벨 고려)와 동시에 수행을 위해 마당의 청정함, 외부로부터의 차단 등을 통해 일상과 비일상의 혼재 |
| 실상무상(實相無相)의 공허 |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실현 |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지 않는 험거운 사각 중정은 형체감이 결여 되 있지만 오히려 시간의 흐름과 자연을 품는다. |
| | 무문문(無聞聞)의 경지 | 명료한 체계 없이 존재하는 무형식의 곡루 |

송광사 우화각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가는 연못위의 홍교인 삼청교를 지나 그 위의 건물이 우화각으로 능허교라는 다리와 한 묶음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지



공간조형개념

표현내용

| | | |
|----------------|----------------------|---|
| 순환적 제법(諸法) | 연속적 흐름 | 물속에 대칭되게 비쳐지는 모습으로 인해 실재와 허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물은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건축물과 자연환경이 끊임없이 순환하게 한다. |
| | 중중무진(重重無盡)의 관계 | 각각의 영역이 흐름을 형성하고 마을을 형성하듯구성 됨, 위계적 구성에서 벗어나 있음 |
| | 묘유(妙有)의 체험 | 흐르는 낙수 소리, 물에 의해 반사되는 빛, 공명하는 소리등이 물의 비 확정적인 특성에 의한 끊임없는 변화요소들을 체험 |
| 무상(無常)적 균형 | 시각적 사라짐 | 규칙적인 기둥들을 지날 때마다 시각의 틀이 변형되어 물속으로 반사되어 이 가변성으로 인해 소실점이 사라진다. |
| | 자유로운 공존 | 휘어진 목재와 불규칙하게 쌓여진 돌은 불완전함 속의 완전함을 이루고 있다. |
| | 무이(無二)적 대비 | 구조나, 색채 면에서 화려하고 웅장해보이나 이 중량감을 극복하기 위해 물의 반사와 흐름을 이용해 떠 있는 것처럼 연출함으로써 중량감 극복 |
| 무여(無餘)의 부정 | 무기교의 기교 | 물이라는 자연적 요소의 활용과 자연스럽게 물 때가긴 담장, 물소리의 관통, 시각적 편안함 |
| | 일상의 현시 | - |
| | 흔재된 일상(日常)과 비일상(非日常) | 사찰진입에서 물을 건너는 행위는 세속제에서 승의제로 전이되는 과정적 행위이다.우 화각은 세속제와 승이제의 연결, 차단의 도구로서 존재 |
| 실상무상(實相無相)의 공허 |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실현 | 물에 비친 환영으로 인해 윤곽선이 말소되어 대립적인 실재와 허상의 개념이 사라지고 무위계이며 형식적 위압에서 벗어나 무의 형상이 된다. |
| | 무문문(無聞聞)의 경지 | 반사되어진 형상은 흐르는 계류에 의해 고정되지 않고 해체되며 분산된다. |

화암사 우화루

화암사 우화루는 1604 임진왜란 직후 중창되었고 누마루 형식으로 정면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으며 석축의 담과 폐쇄적인 외형을 하고 있다.

이미지



| 공간조형개념 | | 표현내용 |
|----------------|----------------------|---|
| 순환적 제법(諸法) | 연속적 흐름 | 내부까지 외부 공간을 확장시켜 앞마당과 중정 모두를 넓게 만들며 동일한 높이의 건물 4채로 인해 흐름 생성, 공간의 끝없는 확장 |
| | 중중무진(重重無盡)의 관계 | 일주문이 존재하지 않고 입구도 우화루 옆 작은 문으로 진입하며 4채가 단일한 공간으로 인식되며 독립적 건축물들의 수평적 관계 형성 |
| | 묘유(妙有)의 체험 | ㄷ자 배치로 인한 폐쇄적인 구조, 누하진입 또한 돌을 쌓아 막아 시야를 철저히 차단하여 기대감 상승 |
| 무상(無常)적 균형 | 시각적 사라짐 | 우화루와 극락전을 일직선으로 배치하고 높이도 거의 같게 하여 존재를 드러내지 않음 |
| | 자유로운 공존 | 휘어진 목재와 불규칙하게 쌓여진 돌은 불완전함 속의 완전함을 이루고 있다. |
| | 무이(無二)적 대비 | 화암사 우화루는 앞쪽에서 보면 2층건물로 보이나 사실은 1층 건물이다. 앞면은 누하진입 마저도 돌을 쌓아 시선을 막고 있지만 그 내부는 비워 대비 효과를 일으킴 |
| 무여(無餘)의 부정 | 무기교의 기교 | 가공하지 않은 목재 그대로의 목재와, 돌 등을 사용하여 재료의 본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불완전함 속의 완전함을 이루고 있다. |
| | 일상의 현시 | 누마루 오른쪽이 본래 대문 자리인데 여 큰 문을 설치하면 사람들이 찾아들어 수행에 방해가 되므로 대나무를 심어 막았고 문간채에 작은 문을 내어 도인들만 들어오도록 함으로서 형식이 아닌 일상에 집중 |
| | 혼재된 일상(日常)과 비일상(非日常) | 화암사 진입부에는 일주문이나 천왕문 대신 우화루가 위치해 있다. 즉 우화루를 진입하는 행위는 일주문, 천왕문, 해탈문의 기능을 내포하며 일상에서 비일상적 공간으로 인도한다. |
| 실상무상(實相無相)의 공허 |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실현 | 창을 열면 안과 밖, 기둥과 벽, 마당이 자연으로 채워지며 막힘없이 하나가 된다. |
| | 무문문(無聞聞)의 경지 | 일체에서 무심하게 떠 있는 듯한 공허의 우화루 외부 |

봉정사 영산암

영산암의 내부는 주거용 공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승방(관심당)과 우화루로 이어지는 ㄱ자형 건물과 주지실로 쓰이는 ㅡ자형 건물(송담당)이 어우러져 ㄷ자형으로 중정을 둘러싸고 있다.

이미지



| 공간조형개념 | | 표현내용 |
|----------------|----------------------|---|
| 순환적 제법(諸法) | 연속적 흐름 | 별개의 건물들이지만 서로 인접하여 관계 맺음으로 인해 이어져 보여 전체 건물들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하나의 건물처럼 보임. 분할된 마당과 겹쳐진 건물들은 생동하는 하나의 전체를 만듦 |
| | 중중무진(重重無盡)의 관계 | 중정은 작은 마당들이 계단으로 이어져 있어 공간이 다양하게 변화함을 느낄 수 있으며 건물들의 배치도 중정의 중심선과 벗어나게 배치하여 안정감보다는 활기있는 공간 구성 |
| | 묘유(妙有)의 체험 | 봉정사 영산암 누하진입은 여느 사찰과는 다르다. 텅빈 중정을 생각하며 올라가면 계속해서 다른 마당이 계단과 함께 존재하고 공간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을 느끼게 유도한다. |
| 무상(無常)적 균형 | 시각적 사라짐 | 분할되어진 영역과 석축의 단들에 의해 건축물은 시각에서 사라졌다 나타났다가 반복 |
| | 자유로운 공존 | 각각의 영역이 흐름을 형성하고 마을을 형성하듯 구성 |
| | 무이(無二)적 대비 | 복층 구조의 건물이지만 비워진 2층의 공간으로 인해 중량감을 덜어주고 비움과 채움의 극적인 대비를 연출 |
| 무여(無餘)의 부정 | 무기교의 기교 | 주거용 공간으로 장식이나 허식은 배제 됨 가공하지 않은 나무와 자연의 색 그대로를 이용, 마당의 청정함을 유지 |
| | 일상의 현시 | 예불공간인 동시에 수도자자거 삶의 공간으로서 개체 공간의 역할과 복합적 마당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위해 공간을 연장, 분리 |
| | 혼재된 일상(日常)과 비일상(非日常) | 영산암은 봉정사 요사채에서 계곡을 건너 올라가면 위치해 있는데 봉정사의 길과 전각들을 지나면서 비밀상성을 경험했다면 계곡물 소리와 자연으로부터 다시 일상성을 느끼고 영산암의 누하진입을 하며 비밀상성을 경험한다. |
| 실상무상(實相無相)의 공허 |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실현 | 비워진 중정 공간과 모서리의 트인 공간, 중층의 열린 공간은 자연의 변화를 끌어들이며 시, 공간을 포용하는 공간이 됨 |
| | 무문문(無聞聞)의 경지 | 누하진입과 우화루와 송암당의 누마루의 열린 공간은 자연의 풍경으로 채워져 건축물과 자연의 경계 소멸 |

부석사 안양루

무량수전 바로 앞에서 장엄하게 펼쳐지는 산하를 감상하기 위해 배치한 누각이다.

이미지



선(禪)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전통사찰의 공간조형개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ce Formative Concepts of Traditional Temple viewed in the Seon Ecology

| 공간조형개념 | | 표현내용 |
|----------------|----------------------|--|
| 순환적 제법(諸法) | 연속적 흐름 | 부석사는 진입부부터 무량수전까지 3단의 레벨변화에 따른 건축물의 배치로 인해 시각적으로 연속된 흐름을 만듦 |
| | 중중무진(重重無盡)의 관계 | 사면이 열려있어 그 안에 모든 것을 포용한다. 계절 시간의 변화에 따라 건축물은 다양한 자연의 모습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 |
| | 묘유(妙有)의 체험 | 앞쪽에서 보았을 때 수평으로 이어지는 축대는 시선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안양루의 볼륨을 한눈에 읽히지 않도록 의도하였다. |
| 무상(無常)적 균형 | 시각적 사라짐 | 높이, 폭, 깊이, 단수, 방향, 각도 등을 계속 바꿔가며 놓여진 계단은 대상을 고정시키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함 |
| | 자유로운 공존 | 부석사 안양루 앞에 놓여진 석탑은 안양루의 중심이 아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 비대칭이나 안양루를 막 올라온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 |
| | 무이(無二)적 대비 | 정면에서 보면 웅장하고 화려하나 뒤편에서 바라보면 가는 기둥에 빈약한 지붕만이 자연과 동화되어 존재 |
| 무여(無餘)의 부정 | 무기교의 기교 | 벽으로 구획된 부분 없이 가느다란 기둥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무기교이며 시선을 차단하거나 자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음 |
| | 일상의 현시 | — |
| | 혼재된 일상(日常)과 비일상(非日常) | 부석사는 안양루-무량수전은 위의 배치도처럼 축이 굴절되기 때문에 시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유도하고 누하진입을 통해 극적인 비일상적 순간을 안양루에 올랐을 때 앞쪽의 도솔봉을 품는 일상적 비일상의 형식을 가짐 |
| 실상무상(實相無相)의 공허 |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실현 | 두 층으로 구성된 높고 긴 축대위에 세워져 있어 수평으로 길게 뻗은 축대 벽면과 동쪽 석탑으로 인해 건물 주변에 한정되지 않고 시선이 무한히 확장된다. |
| | 무문문(無聞聞)의 경지 | 안양문에 올라 무량수전 앞에 서면 내, 외부가 관통하여 건물과 외부 자연은 구별 없이 하나가 되며 형상이 사라져 보임 |

5.0 결 론

_Conclusion

환경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써 학문들 간의 다양한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교와 생태학의 결합도 이러한 배경 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성된 선생태학이라는 관점으로 본 사찰은 선생태학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줄 것이라는 생각이 본 연구의 배경이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공간 조형 개념은 현대 공간조형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전통 사찰의 해석 방법에 있어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선생태학의 공간조형개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순환적 제법(諸法)성은 연기적 상호관계성의 개념으로 생태철학의 전체주의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즉 모든 존재는 관계성에 의해 얽혀져 있으며 결국 전체 안에서 상호 의존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형식의 공간은 자연, 사람, 건축과의 유기적 관계맺음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하며 전일적 존재가 되는 형식이다. 순환적 제법(諸法)성은 세부적으로 ① 연속적 흐름, ② 중중무진(重重無盡)의 관계 ③묘유(妙有)의 체험으로 나뉘며 연속적 흐름이란 건축물의 흐름, 공간의 레벨변화, 길과 여정, 점중에 의해 인식되는 공간 개념이고 중중무진(重重無盡)의 관계는 건축물-자연-인간사이의 관계성, 순환성, 축의 굴절등을 말한다. 이는 건축과 인간의 수평적인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묘유의 체험이란 우회적 동선을 유도하여 시간적 흐름이나 미확정적인 요소 등 변화요소를 체험하거나 불륨이 한눈에 읽히지 않도록 의도하거나 건물의 모서리를 흐리게 하는 방법, 폐쇄적 공간에 낸 창으로 인해 인식의 경계 확장 다양한 빛과 실루엣에 의한 예측 불가능의 기대감과 긴장감등에 의한 조형개념이다.

둘째, 무상(無常)적 균형의 공간은 완성의 부정으로 불완전성, 비대칭적인 불균형적 공간 개념이다. 이는 극단적인 상황들 사이의 서로 조정된 무형적인 상호균형을 의미하며 불규칙적인 변화 가운데서도 어떠한 질서를 갖는 형식이다. 이는 법계와 생태계의 혼돈 가운데 자율적인 질서를 갖는 개념으로 ① 시각적 사라짐 ② 자유로운 공존 ③무이(無二)적 대비로 나뉘며 시각적 사라짐이란 진입부의 굴절이나 건물을 시점에서 사라지게 배치하는 것, 누하진입등에 의한 공간조형요소로 선(禪)사상의 대상성의 제거와 관련이 있다. 자유로운 공존은 배치 및 입면의 비대칭성, 비대칭의 조화를 의미하며 무이(無二)적 대비란 극적인 대비를 말한다. 이는 과대 스케일과 빈 공간의 대비, 매스에서 느껴지는 중량감과 중량감을 극복하기 위한 빛과 색채의 도입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셋째, 선(禪)사상에서는 유, 무생물 모든 존재에는 불성(佛性)이 있다고 하며 이는 생태계의 환경에 대

한 내재적 가치와 상응한다. 이는 본질의 평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공간에서는 무여(無餘)의 부정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박하고 검소한 것, 무기교적인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형태적 작위에서 벗어나 일상성에 근간을 둔 절제된 순수형태를 추구하며 공간의 본성으로의 회귀를 지향한다. 무여(無餘)의 부정이란 ① 무기교의 기교 ② 일상의 현시 ③ 혼재된 일상(日常)과 비일상(非日常)로 나뉘며 무기교의 기교란 인식의 주체와 대상사이에 어떠한 것도 개입하지 않아 상즉상입(相即相入) 즉 서로에게 투명하게 드러나 일치를 이루는 개념으로 탈기교성, 자연의 재료가 주는 아름다움, 소박한 색과 재료, 의장적 요소 제거, 마당의 청정등으로 실현된다. 선(禪)에서는 형식보다는 일상이 우선시되는데 이러한 공간개념이 일상의 현시이다. 선방의 부엌은 대개 주출입구에 위치하여 있으며 선방의 모든 실들이 중정을 향하고 있는 점, 창고와 같은 기능들을 숨김없이 드러낸 구조 등의 형식이다. 혼재된 일상(日常)과 비일상(非日常)란 기존의 양식과 형식을 덜어냄으로써 일상(日常)적 현실 속에 비일상(非日常)적 공간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사찰의 진입과정과 상징적 장치에 의한 끊임없는 부정의 형식이다.

넷째, 유와 무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초월적 통합 상태를 중도라고 할 수 있다. 생태계 안에서 생물들은 저마다의 역할을 지닌다. 해로운, 이로운 존재들로 구분할 수 없는 복잡성 안에서 대자아의 실현이 가능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의 전체성과 하나 됨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분법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무한의 특성을 가지는 실상무상(實相無相)의 공허인 것이다. 위와 같은 조형개념은 비움으로 인해 채워지는 개념이고 ①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실현 ② 무문문(無聞聞)의 경지로 나누어지며 비워진 공간이 시간, 공간, 자연과의 통합체를 형성하는 개념이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실현 형식이다. 또한 이러한 형식은 결과적으로 반 중력적인 형태의 건축물, 건축물의 비형상(非花形)화 상태를 만듦으로서 무문문(無聞聞)의 경지를 실현한다.

이상의 생태학적 공간조형사상을 전통사찰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전통사찰은 자연, 사람, 건축과의 유기적 관계맺음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하며 전일적 존재가 되어 흐르는 관계성을 담는 공간이고 전통사찰에서 전각들을 시각적으로 시점에서 사라지게 배치하거나 자연재료의 변화, 균형의 미, 극적 대비효과에 의한 끊임없는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었으며 일상적인 기능에 집중하며 기교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끊임없는 부정의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선의 교리처럼 일상과 비일상의 요소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존재한다. 또한 건축물을 비우고 자연의 모습을 담음으로서 비유비무(非有非無)를 실현하고 시, 공간을 포용하는 무(無)의 형상이었다.

본 연구는 선(禪)태학의 공간에서의 적용과 활용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디자인 방법론과의 연결이 부족했음을 밝히며 보다 심도 있는 현대의 디자인 방법론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위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공간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김개천, 명목의 건축, 컬처그라퍼, 서울, 2011
2. 서재영, 선(禪)의 생태철학, 초판, 동국대출판부, 서울, 2007
3. 김종육, 불교생태철학, 초판, 동국대출판부, 서울, 2004
4. 동국대학교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 학제적 연구로서의 불교생태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서울, 2007
5. Gary Snyder, Turtle Island, New Directions Book, New York, 1974
6. 김봉렬,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컬처그라퍼, 2011
7. 임석재, 한국전통건축과 동양사상, 북하우스, 2005
8. 길희성, 지눌의 선사상, 소나무, 2001
9. 탁광일, 서구사회의 환경불교와 종교, 숲과 종교, 1999
10. 한면희, 환경윤리, 철학과 현실사, 서울, 1997
11. Yanggida Seizan, 한보광 역, 禪과 일본사상, 불광출판부, 서울, 1996
12. 편집부 저, 불교와 인간, 동국대학교 출판부, 서울, 2002
13. Frijof Capra, 김용정, 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 범양출판사, 서울, 1998
14. H. morowitz, Biology as a cosmological science, Main currents in modern thought 28, 1972
15. 안항미, 선(禪)사상에 의한 미니멀 공간의 특성 분석과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08
16. 강기태, 현대 식음공간의 실내디자인에 있어 동양적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5
17. Togafau Ola J, 다도의 선사상에 따른 현대 실내디자인의 영향: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논문, 2001
18. 홍병화, 조선 후반기 불교건축의 성격과 의미,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2010
19. 박소현, 선사상에 입각한 초월성의 표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20. 안종환, 선불교 사찰의 건축적 개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2001
21. 김개천, 선의 건축조형 개념에 관한 연구: 고려 중,후기 사찰을 중심으로, 한국선학 제 9호, 2005
22. 홍병화, 김성우, 조선후기 대형요사 형성배경과 분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9
23. 박경준, 한국의 불교생태학 연구 동향, 철학사상 제 41호, 2011, 8
24. Paul Wldau, 박서연 옮김, 동물에게도 시민권이 있다, 불교평론 봄호, 2002